

나누는 사람들

2026년 봄호 차례

- 1여는글 | 봄을 모두에게
- 2-10거대한 전쟁, 거대한 재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심층 분석
- 11“폭음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온 편지 |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 12-14‘청년 극우화’ 현상, 일탈이 아닌 설계된 심리전의 결과입니다
특별인터뷰 | 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 15-17라 카페 갤러리, 14년의 여정을 마치며
순례객들이 남긴 마지막 편지 “안녕,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 18“세월호 12년, 슬픔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
10년 회원 인터뷰 | 김영래, 김성실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김동혁군의 부모님
- 19“『눈물꽃 소년』을 읽으며 생각의 힘을 키워가요”
12년 회원 인터뷰 | 김성환님 중학교 국어교사
- “남도의 바다와 갯벌을 지키고 싶어요”
11년 회원 인터뷰 | 박선영님 남도자연생태연구소 대표
- 20-21특별후원, 회비증액, 회원가입 회원님 고맙습니다
- 232025년 10-12월 살림보고

봄을 모두에게

슬픈 봄입니다. 지구마을 곳곳이
폭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
의 양심과 정의가 떨고 있습니다.
거대한 불의가 세계를 휩쓸고 전
쟁과 폭력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
무력함을 절감할지라도, 진실에
귀 기울이고 지켜보고 불의에 아
니오! 외쳐야 할 때입니다. 이 봄,
간절히 평화를 빕니다.



백두대간 산맥의 생강나무꽃 © 박노해, Korea 2008.

2026년 봄호

최근 소식은 nanum.com

거대한 전쟁, 거대한 재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2-10쪽

“폭음 속에서 수업을 합니다”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소식 11쪽

사이버 내란과 청년 극우화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인터뷰 12-14쪽

안녕, 라카페 갤러리

14년의 여정을 마치며 15-17쪽



거대한 전쟁, 거대한 재편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폭살을 시작으로 이란에서만 1,444명(알자지라, 3/16)이 사망, 12개국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국의 압승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란의 강력한 저항으로 장기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침공 당일, 다수의 한국 언론은 “예방 공격”이라는 터무니없는 단어를 받아 쓰며 사태의 본질과 관점을 왜곡했습니다. 전쟁에는 언제나 눈앞의 전장 너머 여러 층위와 차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왜 지금 벌어진 걸까요? 누가 이 전쟁을 설계했을까요? 역사적으로 큰 전쟁은 큰 재편을 위한 가장 주요한 방식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2차대전 이후 달러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가 수립되었듯, 달러 패권이 빠르게 약화되고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재편하는 ‘통제된 파괴(Controlled Demolition)’가 직접적 이유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저변에는 ‘역사 전쟁’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40년간 염원해 온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예언에 따라 중동 전역에 대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다는 신념의 시오니스트 세력은 미국 정부에 막강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유대인 로비단체 AIPAC은 2024년 미 하원의석의 80%에 선거 자금을 냈고, 트럼프 최대 후원자인 미리암 아델슨도 강경 친이스라엘 인사입니다. 주이스라엘 미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 이란 핵합의 일방 파기, 이스라엘에 연간 38억 달러 군사 원조 등이 그 결과입니다. 한편, 전쟁은 신기술과 무기를 급진시킵니다. 미국방부는 팔란티어의 AI 프로그램으로 전쟁 첫날에만 1천 개의 표적을 생성했는데, 국토안보부는 팔란티어와 10억 달러 계약을 맺어 재난관리청, 교통안전청 등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학살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AI 시스템이 이란 작전뿐 아니라 미국 내 이민자 추방 감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실험된 기술은 자연스럽게 통제 도구로 전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쟁의 실상이 무엇인지, 누가 추동하며 이익을 가져가는지, 국제질서는 어떻게 재편될지, 우리 일상과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합니다. 번역 | 신소현 나눔문화 연구원

보도되지 않는 전장의 실상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에 미군이 동원되다

더글러스 맥그리거 Douglas Macgregor 前미 육군대령 2026.3.10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있다. 하이파에 떨어진 이란 탄도미사일이 정유·석유 시설을 파괴했다. 항구도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미군은 지금 이란에 가면 안 된다. 중동에서 커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은 전에 없던 수준이다. 또한 전쟁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곳에서 항상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무엇이든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군대를 어디에 집결시키겠는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에 충분한 방공 시스템은 없다. 미국에서 국민 투표를 하면 압도적으로 이란 전쟁을 거부할 것임에도 정부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정당성, 합법성, 도덕성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다. 오랜 세월 엄청난 돈을 써온 이중 시민권자인 ‘시온주의 억만장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로,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로의 확

장을 원한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기에 미국이 연루된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잃은 목숨의 대부분은, 우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적은 없다. 우리는 2,7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 페르시아를 상대하고 있으며, 이 문명은 미국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대표한다. 설령 승리에 근접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파키스탄이 이란에 핵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네타냐후와 그 정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강경 발언에서 물러서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스라엘 요구에 따른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현될 것 같지도 않다. 이스라엘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은 같지 않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21세기 최악의 민간인 학살 이란 여자초등학교 삼중타격

마리클레르 텔리에 프랑스 기자 2026.3.16

미·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란의 샤자레 타이에베 여자초등



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최소 165명이 사망했고 대부분 7~12세였다. 적십자의료진과 유족 증언에 따르면, 학교는 세 번의 공격을 받았다. 삼중 타격은 민간인 사상자를 증가시키고, 두려움 때문에 구조를 꺼리게 만드는 심리전술이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드론은 우는 아이 녹음 소리를 틀어 주민들을 유인한 후 공격한다. “돕는 자도 죽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학교는 군사 설과 최소 10년 간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다. 21세기 최악의 민간인 학살 중 하나인 이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소진된 미사일, 실패한 작전, 치솟는 유가

알래스터 크룩 Alastair Crooke 前영국외교관, MI6(영국정보기관) 요원 202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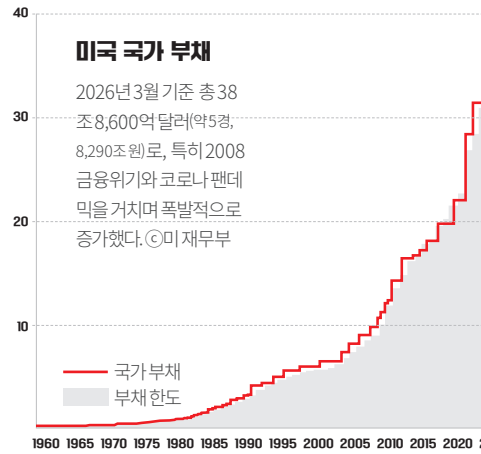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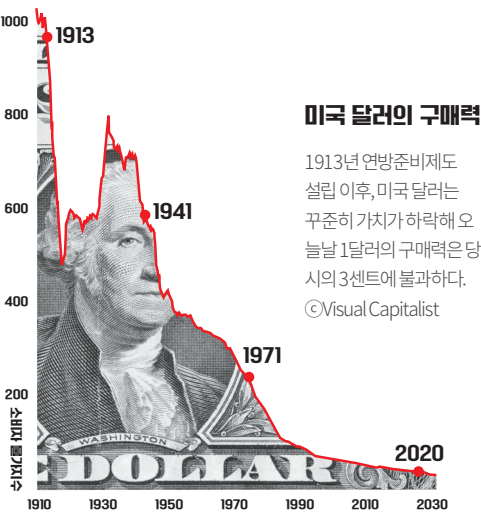
미 정부는 매일 화려한 숫자를 발표한다. “역대 최대 폭탄 투하,” “최대 발사,” 하지만 효과는? 공격하고 싶은 표적은 서유럽 전체 크기에 달하는 이란 곳곳에 깊이 묻혀 있다. “어디를 쳐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전략적 목표는 사라지고, 점점 병원, 학교, 민간 주거지가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조차 통하지 않는 듯하다. 3월 13일 ‘쿠드스 데이’(매년 라마단 마지막 금요일, 팔레스타인에 연대하여 이란 전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시위), 이란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외교장관은 거리의 군중 속에 있었다. 목표가 핵이라면 애초에 달성 불가능하다. 이란이 숨긴 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도 미국도 전혀 모른다. 이란은 2003년부터 미국과의 비대칭 전쟁을 준비해 왔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이라크 지휘 체계를 3주 만에 붕괴시켰다. 이란은 생각했다. “어떻게 주권을 지킬 것인가?” 첫째, 미국이 압도

적 항공 우위를 갖고 있으니 미사일을 전력의 중심으로 한다. 23년 동안 비축해 온 미사일은 2년 이상의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위성은 지상의 모든 군사 인프라를 볼 수 있으니 깊이 묻어 보이지 않게 한다. 셋째, 미·이스라엘은 단기전을 원하며 군수, 표적, 모든 것이 그에 맞춰져 있으니 답은 장기전이다. 미국의 당초 계획은 토요일 아침에 시작해 월요일 시장 개장 전에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계획대로 안 풀릴 때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이미 장기전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해 23년간 미사일을 비축해왔다. ⓒ로이터

마지막은 중앙집권적 지휘 체계를 갖지 않는 것이다. 미·이는 세 차례나 ‘참수 작전’을 시도했지만, 이란 지도부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고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면 각 집단에게 주어진 사전 승인된 명령에 따라 대응이 시작된다. 하메네이 사망한 시간 만에 이 절차가 작동했다. 미군 기지를 공격해 레이더를 눈멀게 하고, 드론을 격추하고, 오래된 미사일로 요격 능력을 고갈시키는 전략이었다. 미·이의 요격 능력은 사실상 소진됐다. 이란의 목표는 분명하다. 다시는 이란 공격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전략적 억지력 확립이다. 제해권을 뒤집어 서방이 통제해 온 에너지 통로, 석유 수송로도 가져오려 한다. 이제 석유를 팔고 싶은 걸프국은 위성국이 아니라 테헤란을 찾아가야 할지 모른다. 이 상황은 결국 금융위기와 혼란으로 이어져, 걸프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바레인도 이미 혼수상태고, 두바이와 UAE에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걸프를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던 아시아 투자자들이 달러가 아니라 금, 위안, 다른 통화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눈을 뜨고 현실을 봐야 한다.



‘비상사태’가 곧 이익인 금융 카르텔

셈귀르데니즈 CemGürdeniz 前튀르키예해군사령관 2026.1.6

미 금융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지출된 수조 달러의 상황이 시작되었고, 38조 달러(약 5경7천조 원)에 달하는 공공 부채로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조 달러(약 1,499조 원) 이상이다. 달러 가치 하락, 사우디-중국-이란-러시아 축을 따라 탈달러화 하는 석유 거래와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약화는 부채 악순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한편 유럽의 금융 시스템은 위기에 의존한다. 탈산업화, 저성장, 고령화 사회는 외부 위협 없이 군사화를 유지할 수 없다.

네오콘(미 군사력을 통한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개입주의자) 및 시오니스트(이스라엘 중심 세계 질서 구축을 원하는 초국적 엘리트)의 금융 자본은 전쟁 종식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불확실성은 이상적 환경이며 전쟁은 파괴가 아니라 생산

미국은 어떤 국가든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탈달러화를 전쟁 행위로 취급해 왔다. 2022년 러시아 해외 자산을 몰수하고, 영란은행이 베네수엘라 금 반환을 거부하게 했다. 시작은 1979년 이란에 대한 조치였다. 이란이 외채 이자를 갚으려 했으나 चे이스 맨해튼 은행은 예치된 이란 자산 지급을 거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든 후, 미국 내 이란 자산을 즉시 압류했다. 막대한 양의 미 국채를 보유한 중동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상상해 보라. 팔레스타인이든 이란이든, 미국 외교 정책에 반하면 언제든 자산이 동결되거나 몰수될 수 있다. 이것이 채무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에 행사하는 힘이며, 트럼프가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탈달러화 시도가 전쟁 행위라고 말한 이유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세계 무역과 투자를 장악해 금융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대안도 개발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처럼 대안을

모델이다. 무기 판매와 부채가 증가하고, ‘안보’라는 명분으로 공공 자원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며, 사회를 영구적인 ‘비상사태’에 빠뜨려 민주적 감시를 약화시키고 반대 의견을 억압한다. 트럼프는 CIA와 MI6(영국 정보기관) 내부까지 뻗어 있는 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된 직후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함께 신년을 맞이한 것은 미 대통령에 대한 시오니스트 세력의 압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였다.



2025년 12월 31일, 신년 회동에 나란히 선 미국 대통령 부부와 이스라엘 총리 부부.

무너지는 달러, 중동 경제를 노리다

마이클 허드슨 MichaelHudson 前월스트리트 금융분석가, 경제학자 2025.6.20

만들 만큼 강한 국가는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통해 대안적인 국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경제를 고갈시키는 것도 탈달러화를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과도한 금융화야말로 탈산업화를 초래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미 금리가 계속 인상되었는데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금리 인상에도 타국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대신 손실을 보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이 이란 전쟁의 근본 이유다. 이란은 세계 무역에서 중동 석유가 가져다주는 무역 흑자를 좌우하는 핵심 세력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이란 대신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라크 ISIS와 알카에다를 대리 세력으로 중동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중남미 경제를 중속 경제로 만든 것처럼, 중동 경제를 중속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다.

미 패권을 뒤흔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더크래들 TheCradle 중동 언론 2026.3.15

이란이 두 가지 발표를 했다. 아랍 및 유럽 국가들이 자국 영토에서 미·이스라엘 외교관을 추방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것, 석유 대금을 달러 아닌 위안화 결제 조건으로 통항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생존, 둘째는 미 패권을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페트로달러의 심장에 말뚝을 박는 행위다. 걸프국 약화는 곧 미국의 약화다. 이란은 이 전쟁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패권을 깨뜨리고 있어, 글로벌 사우스(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등 신흥·개발도상국 전체)가 이란을 응원하고 있다. 3월 13일 거리에서 이란 정부 관료, 장관 여러 명이 국민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셀카를 찍었다. 그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만드는 파급력은 돈으로 살 수 없다.

70년 동안 이란을 침략해온 자들

제프리 삭스 JeffreySachs 미국 경제학자·외교관 2026.3.3



왼쪽부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이란 前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사진을 든 이란 시민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란 폭격 후 네타냐후는 “40년간 염원해 온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클린 브레이크’(1996년 네타냐후 취임을 앞두고 미국 의 친이스라엘 싱크탱크가 작성한 정책 문서. 중동 전역에서 이스라엘 패권을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 행동을 권고했다) 문건에는 중동에서 끝없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2007년 前나토 사령관 웨슬리 클라크가 공개한 ‘5년 안에 7개국 전쟁’ 계획(9·11 직후 미 국방부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7개국을 5년 안에 공격하겠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중동에서 미국의 통제권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려는 모사드-CIA의 합작 계획은 중동 전역에서 피의 강물을 흘려왔다. 미국은 이 시온주의자들에게 끌려가 또다시 끝없는 전쟁에 빠졌다. 미 의회는 전부 시오니스트 로비자금을 받는다. 트럼프는 CIA, 미리암 아엘슨(강경 친이스라엘 인사이자 트럼프의 최대 정치 후원자), 네타냐후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란에 73년 전부터 개입해 왔다. CIA와 MI6는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인기 총리 모사데크가 석유를 국유화하려 하자 그를 쿠데타로 축출했다. 그리고 친미 경찰국가인 팔라비 샤 체제를 세웠다. 1979년, 대중의 반발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현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자 즉시, 미국은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해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을 지원했다. CIA 편이었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쓰임이 다한 후에는 미국 최대의 적이 됐다.

이 모든 사태는 핵무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암살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핵무기는 이

슬람에 위배된다”라고 선언했고, 이란은 협상에 손을 내밀었다. 2015년 미·영·프·러·중·독과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해 UN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감시 하에 놓이기로 했다. 네타냐후는 JCPOA 체결 후 발작을 일으켰다. 그가 원한 것은 이란 정권의 전복이지 비핵화된 이란과의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합의를 지켰지만, 미국은 협상하지 않는다. 속임수를 쓴다. 오래된 이야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나토를 러시아 국경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두바이에서 호텔들이 폭격당한 일은 이 지역에 매우 오랫동안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하지만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국은 미군 기지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미군을 주둔시킨 나라는 CIA도 주둔시킨 것이고, 점령된 나라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지구에서 저지르는 대량학살에도 침묵했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안전은 권력의 노골적인 악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GDP의 6%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면서도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 미국 공항에선 에스컬레이터도, 엘리베이터도, 무빙워크도 반쯤 쪼갠 상태다. 도로는 엉망이고 다리가 무너지고, 생활 수준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미국의 부를 탕진하고, 국력을 낭비하고, 실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서 관심을 돌려 전쟁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비판을 범죄화하는 이스라엘 로비와 글로벌 검열

글렌 그린월드 GlennGreenwald ‘스노든 게이트’(2013)를 보도한 미국 저널리스트 2026.3.17

3월 초, 호주 퀸즐랜드 주는 “강에서 바다까지”를 포함한 이스라엘을 불쾌하게 하는 정치 구호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의 일환으로 해당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고, 체포되어 사법 처리를 받았다. 캐나다, 남미, 유럽,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반유대주의 특별 조정관’까지 두었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면 특정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다수 통과됐다. 34개 주에서 통과된 법률은, 이스라엘 불매운동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서명해야 정부 계약이 가능하다. 서약을 거부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됐다. 심지어 허리케인 구호 지원에도 이 서약을 조건으로 한 도시들이 있었다.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들과 이스라엘 정부의 조직적 노력이 언론 자유에 가혹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나 또한 유대인이다. 반유대주의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유대인만이 유일하게 위협에 처해 있다는 식의 피해의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느낀다. 수십 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던 이스라엘 로비가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충격적 수준으로 붕괴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를 만든 건 자지구 파괴와 그에 수반된 비인도적 잔혹 행위다. 지금 친이스라엘 인사들이 언론을 사들이고, 틱톡을 검열하고, 정부 관리들까지 나서는 이 모든 조치가 오히려 반유대주의를 실제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왼쪽 ‘강에서 바다까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보니 카터(18세, 3.12) 7News. 오른쪽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인지지 시위 2025.8 ©AAP

미·중 대리전, 종교 전쟁 그리고 문명 전쟁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점령했고 방글라데시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카타르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세계 공급량의 20%가 차단됩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랍 전역에서 전개되는 전쟁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걸프국 정부는 자국의 물리적 피해가 세계로 방송되는 걸 원치 않고, 이스라엘 정부도 정보를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상자와 사망자 관련 정보를 검열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셜미디어 기업들 역시 그렇습니다.

세계 패권을 위한 미·중 대리전

이 전쟁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누가 규칙을 만들고 조건을 설정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었습니 다. 2차대전이 끝난 후부터, 1991년 소련 붕괴 이후부터 미국은 단극 세계에 군림해 왔습니 다. 이제는 다극 체제입니다. 중국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미국에 필적하는 강대국입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대리전을 통해 해결됩니다. 어떤 강대국도, 특히 핵시대에는 직접 전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아프간, 한국에 이어 이제 이란인 것입니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

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오히려 핵을 가지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당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비교적 부유한 소규모 국가들이 최대한 빨리 핵을 확보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의 뇌관, 예루살렘 ‘주춧돌’

다음은 종교적 층위입니다. 중동 위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에너지, 석유와 가스를 생각하지만 전통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춧돌(Foundation Stone)’이라 불리는 모리아 산의 바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데려간 그곳에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 다. 무슬림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 바위에서 천국으로 승천했다고, 기독교인들은 근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다고 믿습니 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에게 핵심 장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곳에 지은 제1성전은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고, 이후 헤롯왕이 증축해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 제2성전에서 설교하던 중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한밤중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

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 37년 후인 서기 70년, 로마 제국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극심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성벽을 뚫고 들어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2천 년 된 상처이며 당연하게도 이들은 다시 ‘제3성전’을 세울길 원합니다. 문제는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히 500년 후인 서기 570년,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인 이슬람을 건설했고, 그의 죽음 이후 ‘바위 돔(Dome of the Rock)’이 예루살렘 주춧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옆에는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고, 메카·메디나와 함께 이슬람의 핵심 성지가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바라는 시오니스트

종교적 충돌에 의해 움직이는 일부 이스라엘인, 종교적 유대인, 기독교 시오니스트들은 이 전쟁으로 바위 돔과 알아크사가 파괴되길 원합니다. 제3성전을 재건하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이스라엘 병사는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고, 종교를 실천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유대 민족으로 통합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터커칼슨 Tucker Carlson 前폭스뉴스 앵커. 독립 언론 ‘터커칼슨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을 알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2026.3.5.



뉴욕시 이란 공격 규탄 시위©AP, 파괴된 아랍에미리트 미군 기지 레이더 시설©IRNA 타스, 테헤란 집회 3.13 ©로이터, 미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미나브 여학교 165 명을 위한 합동 장례식 3.3 ©AA



미국 또한 이스라엘의 표적이다

3월 3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본국에서 폭탄 테러를 계획 중이던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 요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걸프국에서 폭탄 테러를 저지하려 했을까요? 걸프국 또한 이스라엘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 랍비 요세프 미즈라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권을 가졌다면, 이란 미사일이 날아온 것처럼 꾸며서 바위 돔과 알아크사에 쏘겠다. 주춧돌 위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이란 탓으로 돌리면 모든 아랍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적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미사일을 쏘아보았고 야투를 암살하면, 걸프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야말로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대한 야망은 중동 지역의 패권입니다. 이란, 카타르, UAE, 사우디,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모두를 약화시키고자 했고, 이를 만에 성공한 것입니다. 현재 걸프국은 미국의 방어를 받지 못하고 불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쁜 동맹국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 또한 내쫓길 원합니다. 더해, 2월 17일 미국 유대인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는 말했습니다. “터키의 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터키는 새로운 이란이다. 에르도안은 교묘하고 위험하며, 이스라엘을 포위하려 한다.” 터키가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 주권 국가이므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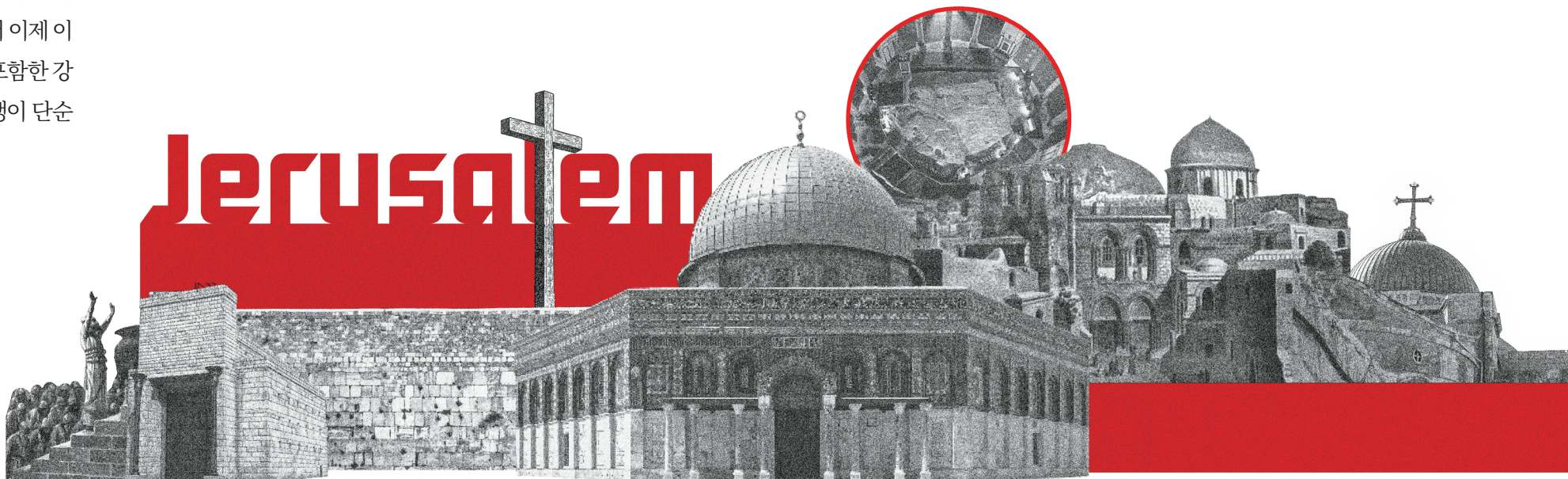
미국은 ‘종교전쟁’으로 치달고 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가장 먼저 한 군사 행동은 이란의 국가 원수이자 86세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살해였습니다. 세계 종교의 지도자를 살해하기 전에는 잠깐 멈춰서 미국에 미칠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어떤 파급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은 약 1,550만 명, 기독교인은 약 25억 명, 무슬림은 약 20억 명입니다. 이슬람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무슬림과 유대인

간의 전쟁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그것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고 미국 도시에서 전개될 것이고, 세대를 이어가는 세계 종교 전쟁은 어떤 바 이러스보다 나쁘고 치명적일 겁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여학교 폭격이 정말 비극적인 실수였는지, 누가 학교를 세 번이나 폭격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AI 자율 무기가 결정한 것이라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사 결정을 기계에 맡기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문명화된 국가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친척이나 조상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믿는 문명입니다. 집단 처벌은 그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혈통을 근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전쟁 뒤에 숨은 기술 권력 경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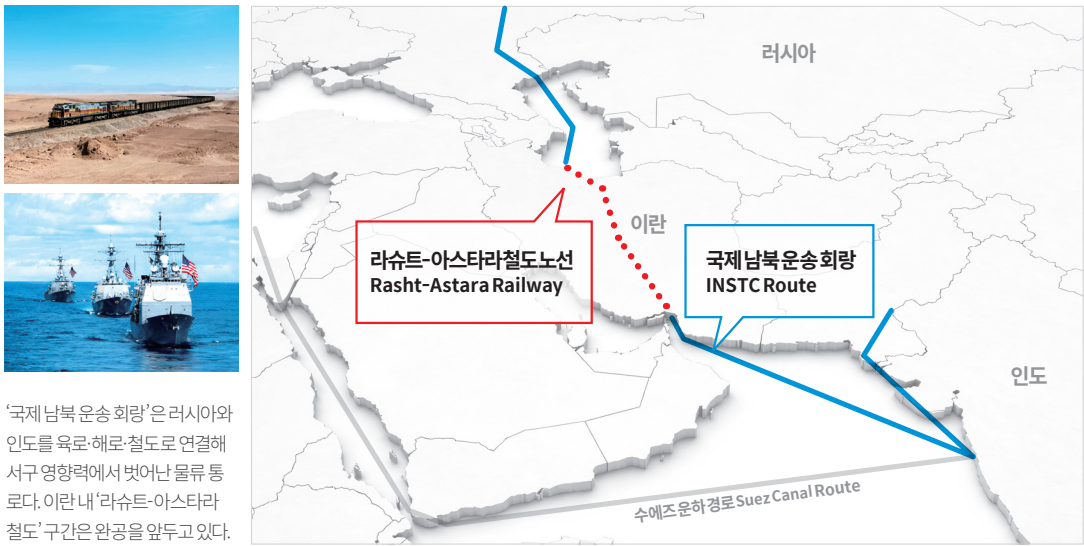
전쟁을 추진하는 마지막 세력은 기술에 의한 세계 지배를 원합니다. 대규모 감시, 인간과 기계의 융합인 트랜스휴머니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비전은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전쟁과 함께 그 역사적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대, 새 역사,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신학적 성격을 띠며, 빠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삶의 본질을 영원히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진실에 다가가야 합니다.



중동 위기는 전통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주춧돌(Foundation Stone)’이라 불리는 모리아 산의 바위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믿으며, 이슬람 성지인 ‘바위 돔’을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짓고자 한다.

이란에서 조용히 시작된 거대한 균열

이브라힘마제드 IbrahimMajed 레바논 지정학분석가 2026.2.6



‘국제 남북 운송 회랑’은 러시아와 인도를 육로-해로-철도로 연결해 서구 영향력에서 벗어난 물류 통로다. 이란 내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방의 전략적 사고는 해양, 주요 요충지, 연안 지배에서 세계적 통제력이 나온다는 패러다임에 지배되어 왔다. 미 해군력, 항공모함, 상륙함대, 미사일 구축함은 이 세계관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결정적 대결은 서구 감시망이 닿지 않고, 해상 차단이 불가능하며, 재정적 압박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내륙으로 옮겨갔다. 이란 북부에서 조용히 지정학적 판권이 내려졌다.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노선 110km 구간의 토지 수용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를 잇는 연결 고리가 물리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철도 이정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무역 경로가 바뀌고, 서방 영향력이 약화되고, 제재가 결정적인 것이 아님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인도양으로 향하는 화물은 연간 1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서방이 통제하는 해협, 나토의 주요 요충지,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것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필수 물자 수송에서 미 해군의 전략 수단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단 한 발의 충성도 없이 느리고 어려운 주권 기반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한 것이다. 이번 세기를 규정하는 전쟁은 조용하고, 구조적이며, 누적적이다. 미사일이나 폭탄이 아니라 계약, 토지 측량, 철로, 공조된 대륙 정책을 통해 전개된다. 서방은 구조적으로 우회당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전략적 균열, 즉 미국이 축적한 힘이 연쇄적 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는 도덕이나 인도주의적

사안이 아니라, 제국의 재무제표 평가에 가깝다. 문제는 미국이 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느냐다. 미군은 속도, 정확성, 압도적 무력으로 지배력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반면, 이란은 인내력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시간과 병력 분산을 통해 해결책 없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일단 개입하면 미국은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평판이 실추되지 않고는 철수할 수 없고, 병력 소모가 가속화되지 않고는 계속 개입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공격은 세계에서 양자 분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패권주의적 행위로 해석되며, 이는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념적 극단주의자, 분산 조직을 포함한 반패권 세력의 광범위한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 기업, 물류 거점, 상징적 목표물을 겨냥한다. 적이 국가가 아니라 환경일 때 억지력은 실패한다. 미국의 존재 자체가 도화선이 된다.

권력은 궁극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고, 무역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동맹국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질서보다 불안정을 야기하면 신뢰는 무너진다. 동맹국은 위험 회피에 나서고, 협력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경쟁국은 탐색에 나설 것이다. 미국 패권에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이 아니다. 이란을 공격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다. 결과는 군사력 소진, 경제 약화, 중국 부상 가속화, 미국에 대한 저항의 세계화다. 제국은 패배했을 때만 붕괴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국보다 더 빨리 자신을 소모시킬 때 붕괴한다.

시진핑의 금융 혁명

아르노베르트랑 이탈리아 경제분석가 2026.2.3

시진핑 주석이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특색을 지닌 현대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월스트리트에 대한 중국의 해답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체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진정한 요소는 도덕 문화라고 주장한다. 서구 금융 시스템은 허무주의적이고 비생산적이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도덕적 목적 없는 금융이 자기 순환과 확장에만 집착하면 근원 없는 물, 뿌리 없는 나무가 된다.” 실물 경제와 분리된 금융이 그 어떤 것에도 봉사하지 않고 자기중심주의적이 되어 결국 경제를 파괴하게 된다는 뜻이다. “금융계가 공공정책을 강탈하는 것”은 서구가 금융 엘리트들의 국가 장악을 허용했다는 의미다. 이 모든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시 주석은 실물 경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 강국’을 제시하며 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위안화를 세계 기축 통화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세계 기축 통화는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의 진짜 적은 서로가 아니다

DDGeopolitics 미지정학매체 2026.2.18

미국에게 서반구는 지주가 상속받은 땅과 다름없다. 어떤 경쟁국도 미국의 뒷마당에 깃발을 꽂을 수 없다. 중국은 훨씬 미묘한 의존 관계를 꿈꾼다. 세계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 항구로 물자를 운송하고, 중국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굳이 침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광활한 지리를 판다. 땅은 다시 힘의 원천이 된다. 세 개의 극은 서로를 위협하지만, 이해관계는 조용하다. 어쩌면 이 세 나라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독립적 사고를 하고 영향력을 규율로 바꾸고 지리적 위상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지역들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세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문명 투쟁

알렉산드르 두긴 AleksandrDugin 러시아 정치철학자 2026.3.15

출범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은 서반구 집중, 구대륙과의 단절이었다. 그러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2월 뮌헨 연설에서 미국이 단극 체제를 고수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1년 사이 네오콘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며 행정부 정책이 중대한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눈앞에서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린란드 합병, 캐나다와의 사실상 전쟁 개시, 나토 해체, 유엔 해체—이 모든 것은 세계 정치 지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글로벌리즘 어젠더의 일부다. 그린란드 사태는 단일 체였던 서방 세계의 분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분열된 세력의 첫 번째는 트럼프다. 두 번째는 EU다. 유럽 전역에 공황 상태가 만연하다. 지도자들은 낡은 체제의 잔재일 뿐, 정치적으로 사실상 거세당했다. 세 번째는 영국으로, 미국과 가까운 듯 보이지만 관계 공격을 받는 등묘한 입장에 놓여 있다. 네 번째는 미국 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원들로, 자신들이 다음 숙청 대상임을 깨닫고 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이다. 친이스라엘 네트워크가 미국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다. 각 진영은 저마다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트럼프-네타냐후 연합이 두드러진다. 네타냐후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선언하

고 ‘대이스라엘’이라는 메시아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말살과 이스라엘 국경 확장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다. 이전의 트럼프와 유럽의 갈등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 글로벌리즘 거부와 ‘딥스테이트’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MAGA가 설 자리는 충분히 있었다. 다극 체제를 기반으로 한 문명국가들은 비교적 쉽게 지구의 새로운 지역 분배에 합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가자지구 학살을 지지했으며, 이란에 선제 공격을 감행해 잔혹한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그 와중에도 엡스타인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다른 이념과 계획이 선포되었던 역사적인 순간은 불행히도 지나갔다. 엡스타인 파일은 서방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진정으로 사탄 숭배 집단임을 드러냈다. 미성년자를 타락시키고, 사람을 사냥한다. 아이들을 강간하고, 난교 파티를 조직한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명이다. 이란은 이번 작전을 ‘홍수의 종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최후의 전투로 여긴다는 의미다. 우리는 다시, ‘딥스테이트’ 세력



위) 트럼프 대통령이 1.20 SNS에 올린 사진 2025.8 유럽 정상들과의 회의 사진에 캐나다, 베네수엘라 영토가 성조기로 표시된 지도를 시로 합성했다. 아래) 이스라엘이 세운 분리장벽 앞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드는 시위자.

과 맞서 싸우고 있다. 지금 서구는 죽어가는 용이 고통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란이 무너지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은 불가피할 것이고 다음은 중국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흑백논리가 아니라 ‘복잡성의 철학’으로 가득하다. 고전 역학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극도로 복잡한 중첩 과정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모호한 네트워크 파동으로 변모하면서 누구도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군사·정치·종교적 차원의 엄청난 힘들이 자신만의 세계관과 중력 상수를 가지고 움직인다. 핵무기조차 일반적인 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잃고 사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또한 관찰자나 중재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전쟁의 참가자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때다.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머릿속에 침투한 방법

그레이존 Greyzone 미국 독립탐사언론 2026.3.7

FBI와 이스라엘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다는 음모를 정교하게 조작해 그가 가진 ‘암살에 대한 깊은 공포’를 악용했다.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였다.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 법무부는 암살범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긴급 제보를 받았다. 모사드가 조작한 제보였다. 이후 네타냐후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암살 시도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단언하며 트럼프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FBI는 나아가 가상의 이란 요원이 대공 미사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허위 경보를 만들어 트럼프 캠프 전체를 극심한 편집증에 빠뜨렸다. 당시 대통령에 대한 정보 흐름을 통제했던 캠페인 책임자 수지 와일스가 2020년 네타냐후 재집권 캠페인의 유급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이스라엘과 트럼프 사이의 핵심 연락책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대통령의 머릿속에 침투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2024.7.13 트럼프라인사미수사건, 2025.6.15 폭스뉴스에출연해이란이배후라고주장하는네타냐후,트럼프와이스라엘사이의핵심연락책수지와일스.

인간을 죽이는 기술이 최첨단 AI가 되기까지

2월 28일, 미 국방부의 이란 공습은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임차한 AI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교차 검증되고, 정당화되었다. 작전 첫날에만 앤스로픽의 클로드가 1,000여 개의 우선순위 표적을 생성했다. 위성 영상, 신호 정보, 감시 피드를 실시간으로 종합해 산출한 GPS 좌표, 무기 권고, 각 공습에 대한 법적 정당화가 담긴 목록이었다. 소비자용 챗봇과 동일한 기술이 CENTCOM(미 중부사령부)의 표적화 인프라에 내장되어, 지휘관들에게 갈끔한 요약물을 제공한 것이다. 수시간의 분석을 수초로 압축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같은 이유로 진정으로 위험한 일이다. AI는 전쟁을 더 빠르게 만들 뿐 아니라 정당화 근거가 실제로보다 엄밀하게 들리게 한다. 상상 결정의 논리가 군사 교리로 훈련된 기계에 의해 사전 처리되고 정당화된 채 도착할 때, 그 사실의 끝에 있는 인간은 숙고하지 않는다. 서류상으로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지만, 인간은 AI의 권고안을 비준할 뿐이다.

전쟁 없는 구글도 클로드도 없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한 방향으로만 전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앤스로픽의 갈등에 대한 보도는 앤

스로픽이 전쟁 참여를 거부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남겼다. 군이 실리콘밸리에 손을 뻗어 민간 기술을 전장에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랬다. 이는 역사를 정확히 거꾸로 읽는 것이다. 인터넷은 핵전쟁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된 펜타곤의 통신 시스템 아르파넷으로 시작되었고, GPS는 미 공군 프로젝트였다. AI 또한 다른 무엇이 되기 전에 먼저 군사 프로젝트였다. 다르파(DARPA,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는 1950년대부터 MIT, 카네기멜론, 스탠퍼드 대학의 AI 기초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오늘날 주요 AI 모델의 기반인 신경망 연구는 다르파의 자원 지원과 연구 자금으로 만들어졌다. 어떤 민간 기업도 보장된 수익 없이 수십 년간 연구 자금을 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연구가 성과를 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들의 경쟁자들이 특허를 내고, 연구자를 채용하고, 기술을 제품으로 되팔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구글은 다르파 없이는 구글이 아니다. 앤스로픽은 펜타곤이 구축한 과학 인프라 없이는 앤스로픽이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와 독점 자본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이 이익을 가져간다. 그것이 정해진 회로다.

AI 부채를 떠받치는 기밀 계약

2024년 11월, 앤스로픽은 팔란티어(빅데이터 분석 기업. 창업자 피터 틸은 CIA 등 정보기관과의 협력으로 유명), 아마존과 제휴하여 클로드를 기밀 군사 네트워크에 통합했다. 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체포 작전에도 관여했으며, 클로드가 통합된 팔란티어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미군 통합전투사령부 2만명 이상이 사용한다. 2018~2022년 미 군사·정보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체결한 계약만 최소 280억 달러(41조6천억 원) 규모다. 같은 기간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5대 군사 계약의 상한액 합계는 최소 530억 달러(78조7천억 원)에 달했다. 대부분의 대형 계약은 기밀 처리되어 공공 조달 데이터베이스에서 차단되므로 실제 수치는 확실히 더 높다. 하지만 AI 산업은 아직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돈을 잃고 있다.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빌린 수조 달러의 AI 부채는 세계 경제를 붕괴시킨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보다 이미 더 크다.

인간은 대체되고 표적이 되었다

그렇다면 불을 켜주기 위한 돈은 어디서 오는가? 펜타곤 계약과 일자리 제거. 미군에 표적 데이터 처리용으로 팔린 것과 동일한 AI 도구가 미 국내에서 법률·은행·물류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거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들은 자동화를 지켜보고 있고, 직접적 위협을 받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체 위협이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면서 임금이 정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창출된 부는 인프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여론조사는 미국민의 21%만이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현대 미군 군사 작전 지지율 중 최저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 시스템이 국내외에서 자신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 도시가 지도에 기록되고, 지도자들이 추적되고, 생활 인프라가 알고리즘에 의해 표적화되는 서아시아 사람들은 의견을 묻어야 할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표적일 뿐이다.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교장
자이납 Zainab 연구원의 편지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촌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에서 온 편지

“폭음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2006년 박노해 시인과 나눔문화가 레바논 내 최대 팔레스타인 난민촌 아인 알 할웨에 세운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설립때부터 교장을 맡은 자이납 연구원의 편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나눔문화 회원님들,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교장 자이납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은 이곳 레바논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매일 고막을 찢는 폭음과 잠 못 이루는 날들 속에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레바논을 무차별 폭격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한하며, 레바논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습니다. 3월 기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1,000명 이상 희생됐고, 100만 명 이상이 피란민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인 알 할웨 난민촌에서도 자이투나 학교 아이들 집 앞에 폭탄이 떨어져,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흘려보내는 피의 강물 위로 비극적인 사연들은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레바논 북부 베다위 난민촌에서는 다섯 아이의 부모이자 UN학교 교사였던 팔레스타인인 부부가 살해됐습니다. 폭격에 임신한 아내와 어린 딸을 동시에 잃은 남성도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희생자들의 시신 조각을 모읍니다. 지금 레바논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거리마다 피란민 행렬이 가득하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폭음 속에서도 수업은 포기할 수 없어

자이투나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아직 무사합니다. 학교 문은 임시로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모일 수 없는



2026년 2월,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는 3월 현재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조차 쉽지는 않지만 폭탄이 떨어지는 절망 속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항의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는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역사와 전통을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가 운영하는 학교가 아예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새학기 6학년 지리교과서에서 ‘팔레스타인’ 지명을 삭제하고 ‘가자와 서안지구’로 대체한 것입니다. 여러 난민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과서를 불태우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학교는 교과서를 폐기했지만, UNRWA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전하고 싶습니다. “중이 위에서 지운다 해도, 우리 심장에 새겨진 팔레스타인은 결코 지울 수 없다”라는 외침은 〈자이투나 나눔

문화학교〉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라마단의 따뜻한 식사 후원 감사합니다

2월 18일부터 한 달간 이슬람의 성스러운 명절 라마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본래 라마단은 싸움과 충성을 멈추는 평화의 시기이기에, 우리는 금식 중에도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라마단에는 해가 진 뒤에야 첫 끼니인 이프타르(Iftar)를 나눕니다. 레바논의 물가가 치솟아 식료품도 구하기 어렵지만, 회원님들의 소중한 후원 덕분에 올해도 90여 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정성을 다해 직접 요리했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시절임에도, 국경 너머의 힘겨운 이웃을 살피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아이들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하루빨리 잔혹한 전쟁이 끝나기를, 새봄에는 평온한 날들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앓 살람 알레이쿰(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①이스라엘이 폭격한 아인 알 할웨 난민촌. ②팔레스타인 지명을 지운 유엔 학교의 교과서를 불태운 시위. ③ 전쟁 중에 라마단의 식사를 손수 준비한 교사들. ④라마단 식사 앞에서 자이투나 학교 아이들.

특별인터뷰 | 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청년 극우화’ 현상,

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34)는 프로그래머 출신 정치·미디어 활동가이다. 12.3 내란 이후 『사이버 내란-넷글 전쟁』(2025)을 발간, ‘물리적 내란’의 기반이 된 국가 권력의 여론 조작, 극우 네트워크의 실체, 극우 청년 양성을 노린 심리전의 위험을 알렸다. 현재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알리미 황희두’(구독자 60만)는 사이버 내란 세력 청산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3월 라카페에서 황희두 이사를 만났다. 자신의 일에 대해 “앞서 희생한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들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라던 그는 인터뷰를 마친 뒤 나눔문화 회원가입을 실천했고, 나눔문화 소식지를 맡줄 그으며 읽다가 해가 저물고야 돌아갔다. 불의에 대한 분노만큼 치열한 노력과 맑은 눈빛을 지닌 ‘청년 황희두’와의 인터뷰를 전한다. 인터뷰 | 나눔문화 임소희 이사장, 윤지영 연구원



라카페 갤러리에서 만난 황희두 이사, 온라인 심리전과 공론장 왜곡을 추적한 저서 『사이버 내란』.

황희두 이사님도 한때 극우 청년이었다고요?

돌아보면 부끄럽고 아득한 20대 초반 때의 일입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 극우의 시선과 언어로 민주진보는 물론 거의 모든 대상을 조롱했죠. 박근혜 탄핵 국면에 광장을 뒤덮은 1,700만 명의 물결을 보며 ‘모니터 밖의 세계’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빨간 약을 삼킨 뒤 가상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극우화’는 단순한 일탈이나 자연발생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과 공권력이 오랫동안 설계하고 개입해온 결과입니다. 그들이 벌이는 심리전의 핵심 타깃, 10대~20대 남성의 한 사람이 저였던 거죠. 내 인생의 한 시기를 허비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싸워보고 싶었고, 그 세력의 뿌리를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가 저의 책 『사이버 내란』입니다. 오늘날 청년·청소년들 역시 혐오가 알고리즘이 되고 조롱이 문화가 된 공간 속에 방치되고 있어요. 12.3 계엄 내란 이후 더욱 두렵해진 ‘청년 극우화’, ‘소년 극우화’ 현상이 그 단면입니다. 그 세대가 평생 지니게 될 가치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초·중·고 강



의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미래인 10대에게 눈을 맞춰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실에서 직접 만나 본 아이들은 실제로 어떤가요?

제가 ‘노무현재단 이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야, 노무현, 노무현” 하면서 키득거려요. 전국의 학교가 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조롱과 혐오 콘텐츠를 갖고 놀거든요.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는 콘텐츠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그날의 국회’라는 게임이 만들어졌다가 삭제된 일이 있었어요. 게임군이나 경찰 역할을 맡아 국회에 진입하려는 시민에게 충격을 가하는 설정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을 재연한 게임, 5.18 광주 시민군을 조롱한 게임도 있었어요. 어른들이 들으면 경악하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재밌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적 관점을 흡수하는 거죠. 틱톡에서는 유

관순 열사와 김구 선생을 조롱하고 이완용을 미화하는 AI 콘텐츠가 3.1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유포됐습니다. 10대~30대가 가장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은 가장 활발한 전장이예요. 12.3 내란 이후 극우 계정들이 폭증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부패한 기득권이다’라는 서사를 만듭니다.

극우 콘텐츠에 아이들이 빠져드는 이유는요?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고 늘 강조하는데, 과거의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자꾸 보다가 어느 순간 제 세계관이 되어 버렸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재밌다”, “중독성 있다”라고 해요. 그 심리의 기저에는 ‘금기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권위의 대상을 조롱하는 행위가 짜릿한 해방감을 주는 거예요. ‘쿨함’의 문화도 작동해요. 게임, 막방 같은 비정기 채널에서 혐오 표현을 마치 용기 있는 소신 발언처럼 포장하고, 알고리즘은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 자주 노출시키죠.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혐오 표현을 ‘멋지고 당당한 것’으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유튜브나 인플루언서의 세계관에 동화되려는 일종의 강자 동일시예요. 하지만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했다고 믿죠.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고착되고 나면 팩트를 줘도 소용없어요. 집을 이미 다 지었는데 벽돌 하나 틀렸다고 집을 허물지는 않거든요. 감정으로 쌓은 성은 논리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세계관 장악을 위한 전쟁이나 마찬가지네요.

학생들은 정치와 역사를 학교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배운다고 말해요. “역사 교과서는 좌편향됐다”, “전두환은 독재자가 아니라 상남자다”, 이게 10대들 사이에 퍼진 역사 인식입니다. 뉴라이트 세력은 오랫동안 플랫폼 장악에 집중해 왔어요. 언론처럼 보이는 콘텐츠, 짧고 극단적인 영상, 밈과 조롱 코드의 결합, 알고리즘을 통한 무한 확산. 이 네 가지 지침 하에 정치 선동과 역사 왜곡 콘텐츠를 유머, 놀이, 게임 콘텐츠로 위장해 퍼뜨려 왔습니다. 결국 이견 정보 주권의 문제입니다. 저들은 10대의 관심사, 트렌드, 취

일탈이 아닌 설계된 심리전의 결과입니다

향을 매 순간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밋을 꼼꼼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 세대의 인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20대를 겨냥한 콘텐츠에는 무엇이 있나요?

최근에 인플루언서 같은 여성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윤어게인”, “멸공”같은 문구를 달고 운영하는 계정들이 생겨났어요. 일부는 접속 위치가 해외로 찍혔고요. 마치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극우를 지지하는 것처럼 꾸며서, ‘우파는 젊고 매력적’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겁니다. 밈팔, DM으로 청년 남성들을 유인하고 애국 데이트 같은 걸 기획하기도 해요. 오프라인 결속을 위한 핵심 유입 창구가 되는 거죠. 여론 조작은 허위사실 몇 개 올리고, 밈글 몇 개 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을 전장으로 삼아 사회 전체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분열을 증폭시키는 ‘인지전’ 단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뇌 해킹’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일을 벌이는 세력의 정체는요?

물리적 내란이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났다면, 정신적 영토에서의 내란은 훨씬 오래전부터 진행됐습니다. 2012년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를 보면 “국민의 마음에 침투, 머릿속 생각을 바꿔라”라고 나와요. 마치 군사 작전처럼 접근한 거죠. 제가 ‘사이버 내란’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입니다. 적국에 써야 할 인지전 기술을 자국민에게, 평화 시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니깐요. 그 뿌리를 캐보면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한나라당이 ‘사이버 전사 1천 명 양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에 작성된 신천지 대외비 문건에는 “젊은 층에 깊숙이 파고드는 후보가 되도록 온라인망 지속 가동”,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으로 극대화”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교, 사랑제일교회, 세계로교회 등 윤석열 정부 때도 권력과 종교의 유착은 계속되었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국가기관이 본격 개입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로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결집하자,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이 본격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국정원은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심리학자와 언어학자까지 자문으로 불러들여 심리전 매뉴얼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이때부터 온라인 공론장에서 민주화를 폄훼하고 586·민주진보·남·여성·소수자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사회적 좌절과 불안, 소속감 결핍을 투사할 ‘적’을 지정하는 반공, 안티 페미니즘 같은 키워드를 통한 감정 동원 전략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정치 밈을 놀이 문화처럼 만든 것도 국정원의 작품이라고 하셨죠.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는 민주진보 진영이 하나로 결집하는 기폭제가 됐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은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사상과 가치 자체를 봉괴시키는 것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비하’는 온라인 여론전의 고정 메뉴가 되었고,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도 수사검사 이인규 씨가 “국정원이 기획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베 커뮤니티는 2016년 쇠퇴기까지 친 정권 여론 확산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일베 회원들이 단식하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 투쟁이라는 패륜적인 일을 벌이기도 했죠. 그런 일베 회원들을 국정원은 안보 특강에 초청하고 국정원 마크가 박힌 ‘절대 시계’를 선물하며 애국 행위를 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심어줬습니다. 일베는 본래 음지의 공간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사고방식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있어요. 일베식 코드가 ‘유머’로 포장된 채 여러 플랫폼에 확

산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국정원이 불씨를 던졌고, 그 불이 스스로 번지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명박 정부의 공작 세력이 윤석열 정부에도 연결돼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심리전을 총괄하던 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귀환했습니다. 뉴라이트 세력이 새 정권의 요직을 차지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됐던 김태호가 대표적이죠. 국정원 밈글 공작을 주도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은 사면·복권됐습니다. 군 밈글 공작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태호, 배덕식 전 기무사령관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도 사면됐고요.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들을 사면해 주나 싶었죠. 실제로 연루 의혹 수사가 필요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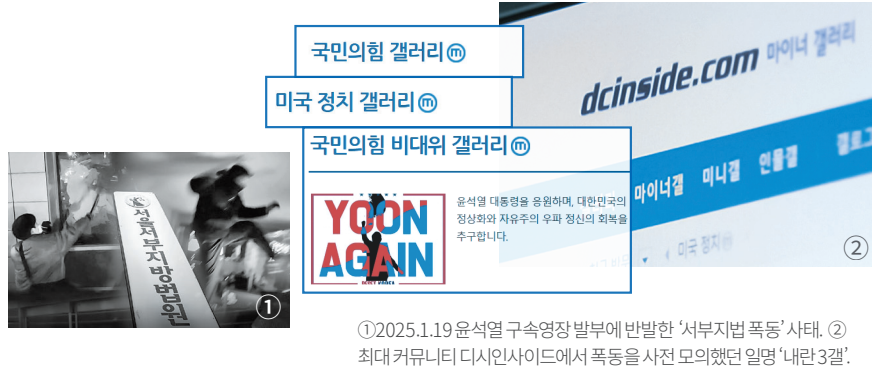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조작 활동은 무엇인가요?

‘리박스쿨’은 미래세대를 겨냥한 장기적 세뇌 프로젝트였습니다. 교육 현장에 침투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서사를 주입하려고 했고, 밈글부대로 여론조작을 벌였죠. 핵심 인사들은 역시 뉴라이트 세력이고, 그 조직망은 국정원 출신 기획자, 관변 단체, 극우 종교 세력, 극우 유튜버, 유사 언론들이 촘촘하게 얹혀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던 오종택 씨도 평범한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가 회장이었던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청년



①게임 플랫폼 스팀의 5.18 왜곡 게임. ②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12.3 계엄 왜곡 게임. ③로블록스 윤어게인 가상 집회. ④이재명 대통령 캐릭터를 공격하는 가상 집회. ⑤내란 선동 ‘자유대학’ SNS 계정. ⑥국정원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시초 이명박 정부. ⑦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교육 단체 ‘리박스쿨’.

“뉴라이트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극우는 ‘인맥·정보·자금’으로 연결되어 해외로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쫄쫄한 지도 만들어 핵심 인물 추적할 것”



극우화를 위해 만든 위장 단체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가 운영한 매체들, 무인기 제작사도 군 공작 위장 회사로 지목됐고요. 이명박 정부 이래 국정원과 군 정보조직의 내부 인적 구성과 문화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무인기 사건을 민간인의 돌발 행동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저들의 패턴은 정권교체 후 재집결입니다. 목표는 뉴라이트 정권 재창출 및 좌파 척결이고요. 빛의 혁명 이후의 흐름을 뒤집기 위해 저들의 공세는 더 치열하고 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이 우려되네요.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정부는 방첩사·예하 보안 연구소에 인지전 전담팀을 신설하려고 했습니니다. 그야말로 사이버 내란도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윤민우 씨가 관련 핵심 인사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중국인 댓글부대가 반일 등 한국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반복해온 인물이에요. 국민의 힘이 선거철에 ‘민 주당과 이재명이 중국과 한 편’이라는 선동을 펼칠 것이란 우려가 가능하죠. 민주당 분열을 조장하는 공작이 없는지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여론조작에 대해 민주당이 대비를 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여전히 ‘한준론’, ‘먹이금지론’, ‘자정작 용론’에 갇혀서 디지털 공간을 방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소수가 훨씬 큰 여론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독약이 우물 전체를 오염시키듯이요. “무시하면 사라진다”는 말도 틀렸어요. 혐오와 왜곡은 무시할수록 더 안전하게 증식합니다. “나이 들면 변한다”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다수가 새로운 타깃이 됩니다. 한 명이 빠져나올 때 열 명이 새로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플랫폼을 정조준해야 할 때입니다. 플랫폼들은 수익 앞에서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일을 외면해왔습니다. 국내 최대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이른바 ‘내란 3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인데요. 서부지법 폭동 전에 범인 담벼락 높이와 평면도 같은 정보가 공유됐습니니다. 온라인 공모가 현실로 직결된 거죠. 구글도 ‘삼진아웃’제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니다. 문제 갤러리 폐쇄가 어렵다면, 최소한 익명에 숨지 못하도록 ‘로그인제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니다. 이는 검열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뤄온, 플랫폼의 정보 유통 책임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조작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뤄지고 있나요? 이명박 정부의 댓글 공작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됐어요. 청와대 비서관과 기무사령관이 공모해 군인들에게 신분을 속인 채 정권 옹호 댓글을 달게 한 중대 범죄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턱없이 가벼운 형벌이죠. 저들은 ‘인맥·정보·자금’으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해외로도 뻗어있죠. 일본 극우의 자금이 뉴라이트 세력에 흘러 들어간 건 기정사실이고, 부정선거 주장 전파의 핵심에도 미국의 애니첸 같은 인물이 있죠. 그런데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은폐된 자금 네트워크, 장기간 누적된 공작 사례, 핵심 인물 추적과 청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꼬리 자르고, 위장하고, 소위 택 같이하는 스킬을 너무 잘 쓰거든요. 당장에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니 뉴스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저는 ‘사이버 내란 특별법’ 제정과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저들의 ‘인맥·정보·자금’ 지도를 촛촛하게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보 유통 창구에서 바로바로 적발하고 추적하는 게릴라전을 치르는 별동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죠.

AI 시대, 앞으로 온라인 전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정치 콘텐츠도 앞으로 메타버스, AI 게임 환경으로 옮겨갈 겁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AI 봇 댓글을 도입했고, 한 달에 약 10만 원이면 AI 자동 댓글을 1만여 개 달아주는 프로그램도 이미 시중에서 거래된다고 하고요.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

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닥칠 혼란을 생각하면 두려워지더라고요. AI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 공권력까지 위장해 다수의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신기술이 정치 공작, 투자 사기, 음란물 유통 등의 도구로 악용되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10년 뒤에는 어디서 이 싸움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게 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을 든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요?

우선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장학사분이 저에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일베가 뭐예요?”였어요. 아이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무엇을 보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모른 채로 걱정만 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거 보면 안 돼”는 역효과만 난다는 거예요. 10대가 극우 문화에 끌리는 이유가 기성세대가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니까요. 대신에 왜 그 맘이 웃긴지, 왜 그 말이 통쾌하게 들리는지 역질문을 해야 해요. 생각의 외주화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게임에서 팀플레이를 고의로 방해하는 트롤 행위를 하면 다른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퇴출시킵니다. 그 경험에 비춰서, ‘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주자는 건, 마치 게임에서 트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이버 내란 진압의 선봉장으로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최전선에서 우리는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기전이 될 테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죠. 저들은 미래세대의 역사관을 왜곡해 과거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들의 희생과 정신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도래 집단에서 놀이가 된 혐오가 부끄럽고 낯은 것으로 인식되는 날이 올 때까지, 각계에서 새로운 온라인 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묻는 뒷북 대응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카페 갤러리, 14년의 여정을 마치며

도심 속에서 계절의 꽃과 나무 사이를 거닐고, 박노해 시인의 사진과 시와 음악에 감싸여 마음의 ‘빛과 힘’을 채워가던 곳. 나눔문화가 2012년부터 운영해온 ‘좋은 삶의 문화공간’ 라 카페 갤러리가 3월 29일 문을 닫습니다. 급격한 월세 인상으로 종로구 서촌의 임대 공간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 문입니다. 14년의 여정, 우리 함께 쓴 희망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41만 명이 다녀간 박노해 사진전은 24번 전시를 통해 지구시대 현장의 진실과 좋은 삶의 원형을 전했고, 감동은 나눔문화 회원가 입으로 이어져 ‘빛의 인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순례지로, 생명 평화 나눔의 가치를 확산했습니다. 2000년 나눔문화를 설립한 이래 몇 차례 자리를 옮겨야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의미 있는 도약을 해냈습니다. 마침내 뿌리 내릴 굳건한 터전, ‘참사람의 숲’을 이뤄가는 날까지 힘과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라
RA CAFE GALLERY



순례객들이 남긴 마지막 편지

“안녕,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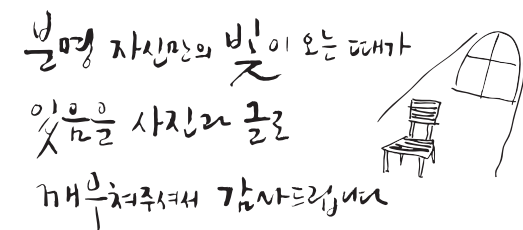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모두가 시인이 된 듯시를 적어 내려간다”
는 어느 순례객의 말처럼, 갤러리 벽에 빼곡히 어우러진
손편지는 하나의 작품이자 감동의 풍경이었습니다.
라 카페 갤러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
이 이 공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마음 깊은 곳의 말씀과
편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서촌 라 카페 갤러리의 마지
막 사진전인 박노해 <산빛>展에 함께한 순례객들의
편지글과 그림을 나눕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 카페 갤러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
는 순간, 제 마음 속 무언가가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속도의 세상에서 나를 잃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도록 이정표가 되어준 곳.
감사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홍연숙님

“마지막 풍경은 늘 특별하다. 박노해 시인의
마음이 오래 머문 공간답게, 많은 사람들이
라 카페 갤러리의 끝을 기억하기 위해 찾아와
있었다. 전시를 보는 마음과 떠나보내는 마음
이 겹쳐진다. 사진 속 산빛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오래 버텨온 존재가 품고 있는 고요와 단
단함처럼 보이고, 그 빛은 사라지기 직전의 이
공간과도 묘하게 닮아 있었다. 누군가의 마지
막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
은, 결국 그 공간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건네
왔는지 증명하는 일이다. 라 카페 갤러리가 사
람들에게 준 온기와 정신이 아름다웠기 때문
에 가능한 풍경이었을 것이다.” -김기환님

“스무 살의 봄, 부암동 라 카페 갤러리에서 박
노해 시인의 사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새
로운 계절이 되면 그곳을 찾았습니다. 특히
삶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면 시인의 사진과 글
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봄날의
그 걸음은 신비로운 이끌림이었을지도 모르
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곳에서
받은 위로와 온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있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이시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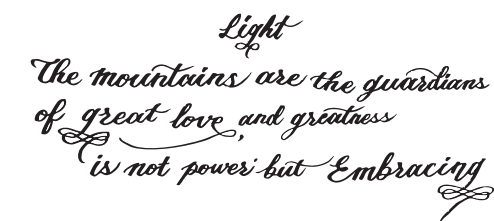
“라 카페 삼촌 이모 안녕하세요? 계엄 반대 집
회 때도 만나고 예쁜 꽃 보는 재미도 있었는
데, 라 카페가 없어진다니 슬퍼요. 그동안 너
무 감사했어요. 꼭 다시 만나요!” - 10살조이언님



“라 카페 갤러리는 14년간 박노해 사진전을
무료로 전시해왔다. 도시는 속도를 자랑하지
만 이 공간에서는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었
다.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으로, 사진 앞에서
시인의 글귀가 메아리쳤다. 방명록 남겨진 다
른 필체의 문장들조차 아름다운 나눔이었다.
방명록에는 ‘고마웠다’, ‘아쉽다’는 글이 많았
다. 사진을 보러 왔다가 시어에 멈추고, 자연
으로 시선을 돌리며, 일상을 돌아본다. 그 순
환이 끊어진다는 사실이 상실감으로 다가왔
다. 라 카페 갤러리는 문화 콘텐츠 이상의 동
선을 설계해온 보기 드문 사례였다. ‘14년 동
안 41만 명’은 각자의 생애에서 잠시 멈추어
섰던 순간들의 합이다. 폐관을 앞둔 공간에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묻는다. 삶은 결국 머
무는 기술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떤 태도로
머무를 것인가. 우리는 낮은 시선으로, 더 오
래 머무는 법을 기억한다. 그렇게 한 공간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유이정님

“삭막한 도시, 메마른 영혼에 푸른 숨이 되어준 라 카페 갤러리”

“먼 나라에서 온 벗들을 라 카페 갤러리에 데
려와, 이 아름답고 환대받는 공간에서 박노해
시인의 사진과 글을 보게 했던 일은 큰 기쁨
이었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
다.” -박노해 사진전의 캡션을 영어로 번역해온 안선재님



“그저 받기만 했던 무료 전시에 감사하고 죄
송한 마음입니다. 유료 전환, 무한 지지! 그런
게라도 계속 있어주세요. 네?” -순례객의 편지

“부암동 산자락에서 2016년의 촛불혁명을
밝혀주었고 이곳에서 2025년의 빛의혁명을
밝혀주었던 나눔문화. 지구마을 이웃들의 삶
을 담은 시인의 사진과 글. 결혼과 퇴사 등 삶
의 큰 결심 앞에 설 때마다 이 공간의 기운을
받으려 방문했습니다. 돌아오다가 아이와 함
께 셋이 되어서 온 라 카페 갤러리는 또 다르
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새로운 곳에서 만나요.” -윤미화님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손수 음료를 건네며
말을 걸어주던 곳. 편리와 효율만을 쫓는 세
상에서 정성과 진심 어린 마음을 마주하던 공
간을 또 한 곳 잃고 말았습니다.” -Shine님

“비록 이 장소는 사라지지만 평화와 나눔과
희망의 가치들은 다년간 이들의 마음 속에 살
아있을 거예요. 그간 감사했습니다.” -ALLY님

“위대한 품을 내어준 라 카페 갤러리는 늘 그
리운 내 작은 방이 되겠지요. 그리 멀지 않은
날, 이곳에서 피어나던 분홍 동백꽃이 참사람
숲에 심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영란님

“울고 싶은 날이면 이곳으로 왔다. 사진 앞에
서면 나만을 위한 눈물이 부끄러웠다. 이곳이
사라진다니 난 울고 말았다.” -순례객의 편지

“나눔문화는 10년, 20년 그보다 더 앞을 바
라보며 씨앗을 뿌리는 곳이죠. 혹여 끝내 싹
을 틔우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이어서 씨앗을
심을 것이라는 믿음으로요. 그래서 저는 나
눔문화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일이 가능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계
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26
년 동안 정부 지원과 재벌 후원을 받지 않는
다는 어려운 원칙을 지켜온 것도 대단하지만,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모
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마지막까지
변치 않을 가치와 정신을 나눔문화의 사람과
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박노해 사진전
의 흑백 아날로그 인화를 함께해온 유철수님

“인생의 나침반이자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었
던 전시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사진과 글에
담긴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인간으로서 가져
야 할 마음가짐을 생각했습니다.” -이지선님

“슬픈 소식이 도착했다. 라 카페 갤러리가 문
을 닫는다고 한다. 박노해 시인의 사진전을 보
러 가기 시작한 지 족히 10년은 넘은 것 같다.
이십 대 때는 노동운동가와 저항 시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세상
과 조금 등지고 사는 사이에 시인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상
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진에 담
아 건네주고 있었다. 부산스러운 마
음에 고요가 필요할 때 찾던 곳. 공
간이 주는 아늑함, 사진이 주는
위로, 글이 주는 공감, 그 모든
것이 아쉽기만 하다.” -제비꽃님

〈나눔문화〉이전 안내



나눔문화는 4월 초 새 임대 사무실
로 이전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63, 3층) 새로운 곳에서
더 단단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회비
증액, 특별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후원하기

국민은행 009-25-0020-949
사|나눔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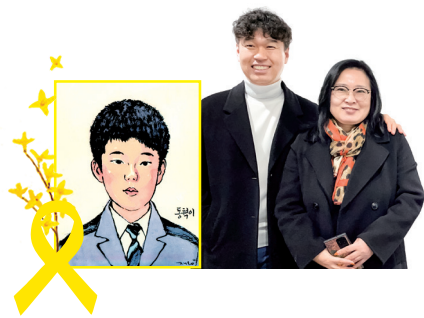
문의 T 02-734-1977 나눔문화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요
〈박노해의 걷는 독서〉

매일 아침, 박노해 시인의 사진과 경
구를 만나는 〈박노해의 걷는 독서〉.
22만 구독자의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네이버밴드, X, 카카오톡에서 계
정을 팔로우하고 받아보세요.

사진전의 감동을 간직할
〈박노해 사진에세이〉

『하루』,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
하게』, 『길』, 『내 작은 방』, 『아이들
은 놀라워라』, 『올리브나무 아래』,
『산빛』까지, 각 권마다 37점의 사진
과 캡션이 담겼습니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문화 10년 회원 인터뷰 김영래, 김성실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김동혁군의 부모님

“세월호 12년, 슬픔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

세월호 참사,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아픈 이름. 어느덧 참사 12주기가 다가옵니다.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으로 나눔문화 회원이 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눔문화 10년 회원 故김동혁군의 부모님 김성실·김영래님은 아들과의 약속, ‘안전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 전국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참사 후의 심정과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두 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터뷰 | 이현지 회원심김팀장

참사 12년입니다.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왔나요?

김영래님 지난 12년은 제자리걸음이었다고 봅니다. 진상규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죠.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스스로 다독여봅니다. 하지만 위험한 기상 조건에서 왜 세월호만 출항했는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핵심 의혹 중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 해군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굳게 닫혀 있습니다. 12년째 진상규명을 외치는 우리는 마치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싸움을 하는 기분입니다.

현 정부나 국회에 우선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요?

김영래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간담회 자리를 가졌어요.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성역 없는 추가 조사 약속, 참사 피해자를 불법 사찰한 정보기관 책임자 처벌입니다.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는 일입니다.

유가족들의 일상은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김성실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병이 깊어져 온둔하는 분들, 일상적 사회활동조차 힘들어하는

분도 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치유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김영래님 저도 가끔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동혁이 곁으로 가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어요. 하지만 훗날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 네 뒤통까지 밝고 씩씩하게 잘 살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해주고 싶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동혁이가 기대하는 아빠의 모습으로요.

유가족분들이 직접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고요?

김성실님 세월호 관련 책을 엄마들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오디오북 채널 <엄마가 알려줄게>를 열었습니다.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청년들만 해도 세월호 참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익숙한 SNS에서 세월호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유가족의 수기를 읽으며 슬픔이 깊어지는 엄마들의 모습에 영상 편집을 하다가 혼자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한 엄마는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벅찼는데, 자기 이야기를 대신 읽어주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416합창단으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김영래님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현장에 꼭 찾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특히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먼 타국에서 일하다 희생된 자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참사 직후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목이 메어 노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김성실님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해주셨잖아요. 지역마다 세월호 시민모임이 있어요. 12년은 유가족도 지치는 시간인데, 추모행사를 열고 논란 리본을 만들어 나누고 세월호 피케팅을 하면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갖고 힘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다

해 노래를 부릅니다. 공연 후에 “416합창단의 노래는 세상 어떤 합창단보다 아름다웠어요”, “노랫말 속에 유가족이 못다한 말들이 다 담겨있어 위로가 되었어요”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긴 싸움을 버텨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김성실님 최근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어머니들을 뵈고서, 세월호 진상규명 또한 오래 걸리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김영래님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동혁군의 이름으로 후원을 이어온 지 10년입니다.

김성실님 참사 2주기에 나눔문화가 소책자 『세월호의 진실』을 제작했잖아요. 세월호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턱을 낮춰줘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 만나면, 나눔문화 연구원이 저를 참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진심 어린 마음을 느껴 회원이 되었죠.

김영래님 살아있었다면 올해 서른 살인 동혁이가 일찍 떠난 것은 사무치는 아픔이지만 한편으로 선물도 남겨주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저희보다 앞서 좋은 세상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혁아, 네 이름으로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었어”라고 말해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동혁이도 기뻐할 겁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요.

김성실님 저희 유가족들이 길 없는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 덕분이었습니다.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외롭지 않게”라는 노래가사처럼 손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노해 시인의 <산빛> 사진전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고산족 여인들은 늘 삼삼오오 함께 다니다 / 산에선 혼자서는 못 살아요 / 서로가 있어 살아지는 거예요 / 사랑의 다른 이름은 나눔, 각자의 짐을 지고도 함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여정 아니까.” 저희 곁에서 걸어주신 나눔문화 회원님들, 언젠가 진상이 규명되는 그날에, 다 같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눔문화 12년 회원 인터뷰 김성환님 중학교 국어교사



“『눈물꽃 소년』을 읽으며 생각의 힘을 키워가요”

아이들과 좋은 책을 읽으며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29년 차 국어교사 김성환님. 제자들이 정해진 답이 아닌 제대로 된 질문을 찾아가기 바란다는 김성환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교실 풍경은 어떤가요?

첫 수업에서 별칭으로 자기소개를 시켜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오”라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왜일까?’ 생각해 보면, 궁금할 때 바로 AI 챗봇에게 물어보고 과제도 쉽게 해결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표현하려면 ‘생각의 힘’이 필요한데 AI라는 기계에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검색을 제한하고 읽고 쓰도록 해요. 두 줄이라도 스스로 써 봐야 일기도 쓰고,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성장에는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AI는 이미 아이들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산업혁명 이후 우리 삶의 변화가 100년에 걸쳐 이

뤄졌다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생각의 힘을 키워줘야지, 검색이란 도구만 쥐여주고 사회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더 많은 문제 풀이보다, 하나라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켜온 박노해 시인 같은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교과서가 아닌 책으로 수업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릴 때 읽은 좋은 책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시 찾게 되고, 경험에 따라 같은 책도 다르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교실에 시집 30권을 두고 한 권을 골라 읽은 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를 선택해 글쓰기를 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자기의 삶을 투영해 작품을 고르고 감상하는 힘을 보여 주었어요. 특히

박노해 시인의 시는 간결한 생활 언어로 쓰여 있어 많은 학생이 선택했어요. 한 주에 2시간씩 4회에 걸쳐 『눈물꽃 소년』을 완독했는데 성장소설처럼 재밌게 읽더라고요. 주인공인 박노해 시인이 어른이 되어 어떤 굴곡을 겪어왔는지 들려주며,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성취했는가보다 ‘어떻게 성장하며 그 변화를 일으켜 왔는가’라고 말해주죠.

나눔문화를 후원해 온 12년,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저에게 라 카페 갤러리는 마음을 정화해 주는 따뜻한 동지 같은 곳이에요. 2016-17년 촛불혁명 때에는 라 카페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집회에 나가곤 했어요. 나눔문화가 만든 빨강파켓을 들면 힘이 더 났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혼쭐을 내렸는데도 거리에 또 나서야해서 씁쓸했지만, 다시 광장을 채운 빨강파켓과 응원봉을 보며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준 나눔문화가 고맙웠습니다.

을 마주하는 게 힘들어 아직도 새만금 갯벌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연을 지키고 싶은 시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요?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 경이로움을 잊지 말았으면 해요. 자주 숲과 바다를 찾아가고 그 안에 가만히 머물며 대자연을 느끼면 좋겠어요. 남도만 해도 자연 생태계가 빠르게 훼손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쫓길 때면 박노해 시인의 글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를 되뇌며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잡고 다짐하곤 합니다.

나눔문화 후원을 11년째 이어주어 고맙습니다.

첫 월급을 받으며 후원을 시작했어요. 박노해 시인에 대한 존경심과 정부 지원, 재벌 후원을 받지 않는 원칙에 대한 믿음으로요. 나눔문화 행사에서 차 한 잔, 밥 한 상에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사회 문제에 나서면서도 우리 삶의 섬세한 곳까지 마음을 쓰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라 카페 갤러리를 시작했을 때는 앞서간다고 생각했고, 좋은 문화를 나누는 일이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나눔문화, 고맙습니다.

나눔문화 11년 회원 인터뷰

박선영님 남도자연생태연구소대표

“남도의 바다와 갯벌을 지키고 싶어요”

도시에서 자란 문학소녀였던 박선영님은 환경단체에서 일을 시작해 사라지는 자연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와 현장 활동을 25년간 해왔습니다. 소녀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동안 만나왔던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박선영님을 라카페 갤러리에서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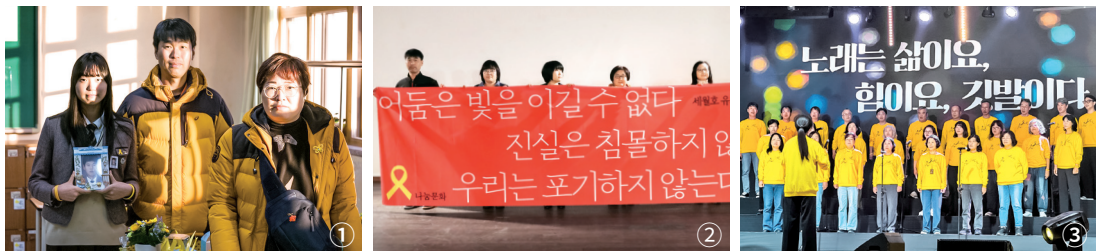


언제부터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됐나요?

제가 처음 맡은 일이 멸종위기종 보존 운동이었어요. 당시 내 앞에 있는 나무 이름도 몰랐는데, 계절의 변화를 접하고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며 잃어버린 감각들을 되찾게 되었어요. 자연과 가까이 있을 때 느껴지는 충만함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졌고, 생태 보전 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25년간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현상이 있다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방조제 공사가 한창이던 새만금에 매달 찾아갔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을 꾸려 두루미, 붉은어깨도요 같은 조류부터 갯지렁이 같은 저서생물, 그 땅의 문화까지 모든 생명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변해버렸을 모습



① 동생 김예원님, 아버지 김영래님, 어머니 김성실님, 단원과 교실에서 ©오마이뉴스 ② 2016 나눔문화賞 수상 ③ 416 합창단 공연 ©본인제공

봄꽃처럼 세상을 밝혀주는 새내기 회원님들

푸른 숲을 이루어가는 회비증액 회원님들

세 아이와 함께 걷는 평생 나눔의 첫 걸음

박노해 시인의 자전 에세이 『눈물꽃 소년』을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마침 나눔문화 회원인 지인의 소개로 회원이 되었고, 시인이 설립한 단체라는 점에서 더 신뢰가 생겼습니다. 새해를 맞아 세 아이도 함께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아이들 통장에서 각각 회비가 출금되도록 했습니다. 나눔이란 평생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으니까요. 소식지 회원 명단에서 아이들과 나란히 이름을 찾아보며 기뻐할 날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회원가입 이가륜님, 이시운님, 이원영님, 이시우님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준 라카페 갤러리

마음이 지칠 때면 박노해 사진전이 떠올라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고 라 카페 갤러리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자신감 갖기가 아닌 자신이 되기”라는 글은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AI 담론 역시 나눔문화 소식지를 통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눔문화 회원으로서 제 마음을 밝히며 단단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회원가입 정도담님

받은 사랑을 사회에 갚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지난 2024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나눔문화에서 보내준 『촛불혁명』 책은 제게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 감장하’ 선생님의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나 말고 사회에 갚아라”라는 선생님의 당부를 늘 마음에 새기고 학자가 되었고, 지금은 대학에서 ‘예뻐꼬마선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소 서촌에 들르면 박노해 사진전을 종종 찾곤 했는데, 이제 나눔문화 회원이 되어 기쁘게 동행하려 합니다.

회원가입 이준호님(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팔레스타인 난민촌 학교를 위해 힘을 보태요

〈산빛〉사진전을 보기 위해 라카페 갤러리에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목사님이 읽어주신 박노해 시인의 글귀 “내 영혼이 깃든 발이 걸어가는 곳에 머리로 가슴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라는 문장이 큰 울림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평화 활동을 이어왔고,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학교를 세운 것을 알게 되어 힘을 보태니다. 회원가입 김시은님

『노동의 새벽』이 깨운 울림을 나눔으로

대학 시절, 박노해 시집 『노동의 새벽』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식인의 언어가 아닌 치열한 현장에서 걸어 올린 절절한 시어들은 노동운동에 대한 저의 선입견까지 바꾸었습니다. 출소한 후에도 변함없이 곧은 길을 걷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 나눔문화가 만든 소책자를 읽었는데, 알찬 내용과 아름다운 만듦새 때문에 주변에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깨어 있게 하는 좋은 사람들, 좋은 단체와 함께하고 싶어 회원가입합니다. 회원가입 유금자님

박노해 시인의 사진과글로 저를 돌아봅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면 박노해 사진전을 찾게 됩니다. 이번에는 휴가를 내어 사진전을 보러 갔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위험한 땅, 척박한 고산지대에서도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잇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묵묵히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나누자는 생각으로 기쁘게 회원가입합니다. 회원가입 심혜영님

라카페 갤러리에서 받은 마음을 회원가입으로

라 카페 갤러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엇이든 보낼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회원가입했습니다. 매일 SNS에 올라오는 〈박노해의 걷는 독서〉를 보며 제 마음에 평화를 얻곤 했습니다. 시인의 글과 사진을 소개했던 동료들에게 정부 지원과 재벌 후원 없이 운영되는 나눔문화 회원가입을 권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마음을 내어 회원이 되어주었습니다. 라 카페 갤러리는 나눔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열려 더 많은 사람과 이 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원가입 김선영님과 하여정님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에 나무 심는 마음으로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좀 더 푸르러지기를 바라며, 나무 심는 마음으로 회비를 증액합니다. 쌍둥이들 덕분에 웃음도 두 배, 수고도 두 배이니^^ 나눔문화 회비도 두 배로 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시원아와 진원이가 어서 자라 서울 나들이 가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나눔문화도 두 배로 힘내기를! 회비증액 정우나님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첼로의 선율처럼

방병진 회원님을 통해 나눔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소중히 품어온 나눔의 가치와 이곳의 뜻이 맞닿아 있어 반가웠습니다. 저는 첼리스트로서 카네기홀 등 세계적 무대에 서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코로나 시기 멕시코 봉사활동 중 마주한 4천 여 명의 소외된 아이들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연주를 통해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악기의 울림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의 여정에 함께합니다.

회원가입 김영환님(첼리스트)

새해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다짐으로

친구와 서촌 거리를 걷다 우연히 마주친 ‘흑백 사진전’, 라 카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던 박노해 〈산빛〉전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박노해 시인의 치열하고 정의로운 삶을 보며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뜻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새해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나눔문화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원가입 여은별님

라 카페에서 일하며 깊어진 믿음으로

지난 9개월간 라 카페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박노해 사진전을 관람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회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연구원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단순히 좋았다는 전시 감상을 넘어 “나를 돌아봤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며 시인의 사진과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 닿고 힘이 되어준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라 카페 갤러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더 안타까웠고, 취업 후에 하려던 회원가입을 서둘러 했습니다. 나눔문화와 팔레스타인 평화 행진에 나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한국에도 문제가 많은데 왜 남의 나라 일까지 나서느냐?”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전쟁의 참상을 알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나눔문화는 세상이 외면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해야 할 일을 끈질기게 이어가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눔문화가 계속 세상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저도 회원이 되어 그 길에 동행하려 합니다. 회원가입 임건서님

나눔문화 회원가입 라 카페 갤러리에서 이어진 소중한 인연,

“라 카페 갤러리는 제게 오래된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회원가입 정홍섭님

“오래전부터 추천받은 이곳을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회원으로 인연 맺고 갑니다.”



나눔문화 18년 회원
윤현수님 소개로
회원가입 김윤덕님

“박노해 시인의 사진전을 보러 종종 찾아왔던 라 카페 갤러리. 소중한 것을 품는 마음을 배우기에 늦은 때란 없겠조? 회원으로 함께 합니다.”



회원가입
김경희님과 백용길님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는 박노해 시인의 용기와 신념, 내 삶에 힘을 주는 사진과 글을 마주하려 속초에서 달려왔어요.”



회원가입 김승아님

“18년간 후원해 온 나눔문화, 새 길을 잘 열어가리라 믿어요. 오늘 손녀 이름으로 가입해서 가족 3대가 모두 회원이에요. 오래 함께하며 응원할게요.”



나눔문화 18년 회원
김혜은 님께 회원가입을
선물받은 정다은아가

“박노해 사진전을 보며 문학평론가로서 어떤 작업을 해나가야 할지,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은 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입합니다.”



회원가입
허희남(문학평론가)

회원가입 79분

회비증액 16분

특별후원 126분

2025.12.3~2026.3.17 **회원가입** 강유미 강익구 김경원 김등근 김동환 김사군 김선영 김선영 김숙경 김승도 김승아 김시은 김영환 김유미 김윤덕 김윤철 김은영 김진웅 김태우 김현미 노현상 박정미 박현진 백용길 백해룡 서미영 서민성 서종필 손형진 송유래 심영호 심혜영 안영서 양나경 여은별 염미숙 오경훈 유금자 윤현배 이가륜 이미경 이병선 이순철 이승원 이시우 이시운 이연옥 이영순 이영희 이원영 이은경 이을부 이일순 이준호 이준호 이지은 이효신 임경서 장성아 장형근 전금숙 정다은 정도담 정성희 정애진 정필숙 정홍섭 지희 채현순 최상돈 최현아 최영이 최준연

한신설 허여정 허윤정 허희 황예경 황희두 **회비증액** 강경호 류부철 박민지 박종찬 신지현 안영숙 윤성욱 이광철 이윤아 임현선 정상현 정종익·정우나 최수연 최영은 최해든 투핸즈인터내셔널 코리아 **연말특별후원** 고영오 기경서 김민수 김정은 김학순 노혜숙 명재권 문선희 박기홍 박노해 박순자 박정주 박종재 박희수 서정민 송시원 송창의 안경준 안준호 오정숙 유연희·정윤호 윤희실 이나미 이병남 이슬기 이재삼 이정현 이정현장해숙 전명숙 정순덕 조준화 최숙련 최현국 최현정 최형석 한치호 한현하영숙 허윤정 허은영 허진강 황선영 황지현 가림다마울영농조합법인

남도일보 노비산마을 느린걸음 라책방 민들레독서모임 **특별후원** 고현욱·박명복 김경숙 김동욱 김영주 김윤덕 김차현 김희영 노혜숙 레지나 박근영 배정환 서유리아 송창의 심해린 우용제 이엽 이재영 이정희 장은경 최창만 한치호 항유 황현정 나비아날자 민들레독서모임 세경의료재단 언저리사회적협동조합 우리은행효자동 지점 12월청년피정봉헌금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강상철 고봉석 고제희 김문성 김보성 남경순 루시아 박의순 신용래 신인선안젤라 오현미 유경민 이강애 이명옥 이수종 이시중 이영수 이재삼 임주영 전명숙 한소영 한재익 허영숙 금산착한농부 에벳28기 원로마라톤동호회(강유미 김석현 김숙경 배진경 우영태 유상천 윤영옥 윤종배

이대현 이용찬 이은영 정소희 정희종 조은경 최세인 허영선) **소책자** 초록교육연대외 1분 선물나눔 먹을거리와 간식을 챙겨주시신 김윤찬 김채우 김희진 방병진 안기정 유금자 윤순남 이필영옥 임혜선 전안혜 진정희 최예원 허희님, 살림살이를 보내준 김성환 김연수 마은식 유현정 조혜영 차에셀넵 고맙습니다. 선물해주신 책, 이태원참사 유가족 김남희·신정섭님의 『애진이와 함께한 순간들』 『아로새기다. 너에게 가는 길』 방병진님의 『패치워크』 유경민님의 『소망의 한자 이야기』 지은정님의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 고맙습니다. *나눔문화 후원회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신 박순갑최병규님, 이지혜님, 정재희님, ...님 연락주세요.

햇살처럼 따스한 특별후원 고맙습니다

나눔을 배우고 실천도 하는 아이들

운영 중인 <더울림>에서 아이들과 함께 독서 토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으로 받은 강사로 전액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으로 <자이투나 나눔 문화학교>에 후원합니다. 아이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사는 또래 친구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나눔’의 참된 의미에 대해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주영님(나눔문화

10년회원)과 권준님(김도현님 바치민님 양

태훈님)김태주님 윤서준님 이규진님이

예담님 이지우님 조윤성님 황동건님



어려울 때일수록 힘겨운 이웃을 떠올리며

아동가족상담소를 운영할 때, 찾아오는 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자 <박노해의 걷는 독서> 속의 좋은 문장들을 곳곳에 붙여두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관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시인의 글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으로서 지난 10년간 지켜본 나눔문화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꼭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참 확실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정한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며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조춘화님(나눔문화 10년 회원)

지금 현장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나눔문화 소책자『원자력 거짓신화의 진실』나눠어요

나눔문화 회원 성원기님(강원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명예교수, 10년 회원), 유금자님(초록교육연대 대표, 1년 회원), 청명님(11년 회원), 하현중님(퇴직교사, 14년 회원)은 지난 3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나눔문화 소책자『나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원자력 거짓신화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보태고자 특별후원합니다”

서울에 올 때면 라카페 갤러리에 들르곤 했어요. 초록 벽과 빈티지 탁자, 따뜻한 시선으로 정겹게 대화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계절마다 반겨주는 꽃과 나무까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눔문화가 <참사람의 숲>에 잘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며 사무실 이전에 작은 보탬을 주고 싶어 후원금을 보냅니다. 이정희님(나눔문화 3년 회원)



“금산 농부의 마음을 난민촌에 전해주세요”

충남 금산에서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이웃과 나누자’는 마음으로 다섯 가정의 <금산착한농부>모임을 이어왔어요.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보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나눔문화가 20년간 난민촌 학교를 운영해왔고, 재벌 후원과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언론 홍보에 의존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귀한 일을 해 나가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

는 평화로운 일상을 기도합니다. 김재순님 이정숙님 박순애님 김명준님 김윤옥님



회원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명규님의 아들 최종문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봄날, 최명규님과 이의숙님(나눔문화 21년 회원)의 아들 최종문님이 장지혜님과 결혼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만큼 세상에 따뜻한 온기도 나누며 살고 싶다는 두 분, 축하합니다.



정원사 김장훈님, 풀에 대한 모든 것『풀의 정원』출간

식물 연구가이자 정원사인 김장훈님(베레 가드닝 정원가, 나눔문화 7년 회원)이『풀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냈습니다. 풀의 정의부터 습성에 따라 분류한 340여 종의 목록까지 총망라한 귀한 책입니다.



홍근옥님의 오랜 꿈, 음악 감상실 오픈을 축하합니다

가수 홍근옥님(나눔문화 3년 회원)이 신금호역 인근에『Music Space 찬란한 일상』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을 신청하면 최고의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신청곡 들고가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경훈님의 아버님故강수봉님 소천

지난 2월 강경훈님(나눔문화 4년 회원)의 아버님 강수봉 세례자 요한님(故강미순님 남편)께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투병 중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주신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도 드립니다.

김대성님의 아버님故김용하님 별세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나누며 오랜 시간 노동 운동을 이어온 김대성님(권리찾기유니온 감사, 나눔문화 17년 회원)의 아버님 김용하님께서 지난 1월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 나눔문화 정기총회

나눔문화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활동과 결산을 보고하고 새해 계획과 예산안을 의결 받습니다. 총회 결과는 나눔문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www.nanum.com

- 안건 : 2025년도 활동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계획 및 예산
소재지 주소 및 사업 변경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저녁 7시30분
- 장소 : 라 카페 갤러리 (서울 종로구 통의동10)

참가 신청 010-8751-1977 회원성금팀

나눔문화 활동보고

안녕하세요, 나눔문화 회계팀장 이향미입니다. 2025년도 4분기 결산보고드립니다. 정기 후원금은 전년 동기간 대비 0.6% 증가했으나 민생경기 어려움 등으로 연말특별후원이 줄어 총수입이 34% 감소했습니다. 새내기 회원 중 박노해 시인의 책과 사진전을 통해 가입한 분들이 50%, 회원님들의 소개로 가입한 분들이 30%입니다. 올해, 지인 한분씩만 더 나눔문화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0.2% 증가,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지원, 노동·장애인·농민 단체 등 19곳 연말 후원, 나눔문화 10년 회원 시상식 등이 있었습니다. 2025년 총결산은 4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며, 또 다른 도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나눔문화를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눔문화 10~12월 수입

	10월	11월	12월
정기 후원금	75.2%	60.1%	60.2%
부정기 후원금	1.2%	0.3%	6.4%
현장나눔활동 후원금	0.1%		0.1%
글로벌평화나눔 후원금	2.9%	2.9%	7.7%
라카페 갤러리 수입	17.8%	17.6%	8.7%
월평균 수입	102,455,854원		
총 수입		307,367,564원	

나눔문화 10~12월 지출

	10월	11월	12월
글로벌평화활동	6%	5.6%	3.7%
현장나눔활동	0.5%	0.1%	1.5%
대안생활문화	6.3%	16.9%	4.7%
대안사상나눔	0.4%	0.6%	5%
나누는사람	0.5%	5.2%	6.2%
회원성금	3%	1.3%	0.9%
인건비	36.3%	28.4%	38.3%
활동운영비	10.4%	9.1%	3%
임차료	20.7%	18.6%	12.4%
카페운영비	15.6%	14.2%	24.3%
월평균 지출	115,907,063원		
총 지출		347,721,191원	

※ 2025년도분 퇴직적립금 적립과 사회보험료 정산 조정을 12월에 진행했습니다.

생명 문화 나눔

‘참사람의 숲’ 나눔문화는

생명·평화·나눔의 세계를 열어가고자 2000년에 설립한 비영리사회단체입니다. 전 지구적 생태재앙, 심화되는 양극화, 전쟁과 기아질병, 영혼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직시하며 사회실전에 힘써왔습니다. 나눔문화를 설립한 박노해 시인은 계층과 이념, 종교와 세대, 국경을 넘어 ‘적은 소유로 기쁨 있게’ 살아가는 대안 삶의 혁명을 나눔문화 연구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며 3,500여 회원님들과 ‘사람’과 ‘대안’을 키워온 나눔문화 26년. 참 좋으신 그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눔문화가 지켜온 다섯 가지 원칙

정부 지원과 재벌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돈은 명령입니다. 좋은 돈은 좋은 일을 하는 명령이 되고, 좋지 않은 돈은 나쁜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불의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순수한회비로만 운영합니다.

언론 홍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직하게, 나눔은 소리 없이. 언론의 입맛에 맞춰달아 알려지기가보다 진정성으로 다가서겠습니다. 크게 울려 퍼지기가보다 숨은 희망의 사람들끼리 호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시대 꼭 필요한 일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잘 되는 일에 경쟁하여 나서는기보다, 서로 살리고 키우며 함께 진보하는 실천을 힘에 다해 이어가겠습니다.

주장을 앞세우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차이에 귀 기울이며 진리를 찾아가는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낸 감동의 힘으로 희망을 키우며, 진리실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좋은 일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이 좋게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님을 명심하겠습니다. 실적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사이 좋게 나누면서 일하는가를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눔문화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장	임소희 도서출판느린걸음대표
이사	김영준 yo2도시건축대표 박노해 시인 윤재갑 그라운드서울디렉터 이기영 월간<사진예술>발행인겸 편집인 이미경 세무사, 광고세무법인노현지점대표
감사	도 법 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고문	정희익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박기호 산위의마을대표 신부 김동건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前서울고등법원장 이호순 허브나라원장

나눔문화 회원가입

나눔문화 후원회원이 되주세요
나눔문화는 3,500여 회원님의 순수한 회비로만 운영해온 비영리사회단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나누는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누는 그대가 희망입니다.

회원가입 02-734-1977 | 010-8751-1977 전화
www.nanum.com <후원하기> 클릭

후원계좌 국민은행 009-25-0020-949
사)나눔문화연구소

나눔문화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탈핵희망 전국순례단’ 청와대 앞 기자회견 ② 나눔문화 소책자 배포, 광화문 광장 ③ 나눔문화 소책자 읽기, 라카페 ④ 나눔문화